



칼레 해전

“이 무적함대가 너무나 철저하게 불구가 되고 산산이 흩어져 버려, 폐하에 대한 제 첫째 가는 의무는 함대의 구조인 듯 했습니다... 탄약과 전함 중 최상의 것이 부족해, 영국 여왕의 함대가 이런 종류의 전투에서 우리 함대에 비해 너무나 우월했으므로 남은 배가 전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리란 걸 우린 알고 있었습니다...”

-메디나 시도니아 공이 필리페 2세에게 보낸 편지 #¹

Prologue

“전하, 대서양을 건너오던 우리 함대를 영국 해안 근처의 해적들이 다시 약탈해 갔다고 합니다.”

새벽미사와 아침미사를 드렸으나 여전히 기도실에서 나오지 않는 필리페 2세에게 알론소가 고했다. 자신의 기도시간을 방해 받아 기분이 썩 좋지 않았던 필리페 2세는 본국의 함대소식을 듣자 얼굴을 더욱 찡그렸다. 더군다나 내키지도 않는 결혼을 위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보낸 청혼 편지에 대한 답장을 받지 못한 필리페 2세는 짜증이 솟구쳤다.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청혼에 대한 답장은 도착했는가? 또한, 해적들에 대한 처벌요구에 대한 영국의 답장은 아직 안 왔는가?”

“그게 사실 전하...엘리자베스 1세가 청혼을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적들의 수장격인

¹ 이에인 디키, 마틴 J. 도헤티, 필리스 J. 제스티스, 크리스터 외르겐센, 릭 S. 라이스, 『해전의 모든 것 : 전략, 전술, 무기, 지휘관 그리고 전함』, 한창호 역, 서울 : Human & Books, 2010, p.121 ¹

프랜시스 드레이크라는 작자에게 처벌은 고사하고 기사작위를 수여해 영국의 귀족으로 만들어주었다 합니다.”

“...알았다. 그만 가보거라.”

필리페 2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렇지 않아도 엘리자베스의 종교가 성공회라는 것이 그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였는데, 얼마 전에는 카톨릭 교도인 메리에 대한 처형까지 집행했다. 더군다나 그의 청혼마저 거절했다니 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다. 청혼에 대한 거절과 해적들에 대한 골머리로 이골이 난 필리페 2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결국 다음날 아침 필리페 2세는 에스파냐의 무적함대 아르마다의 출정을 명했다.

함선의 규모는 대형 갈레온선 20척, 사략선 44척, 수송선 23척, 소형 보조선 35척에 갈레아선과 갤리선이 각각 4척, 선원 8500명과 보병 1만 9000천명이 탑승한 어마어마한 함대규모였다. 또한 해전에 있어서 백전노장이던 산타크루즈 장군이 출병 직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필리페 2세는 시도니아 장군을 선두에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전투에 대한 경험이나 부하들로부터의 깊은 신임을 받지 못한 시도니아이지만 필리페 2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함선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를 강조하며 그를 영국으로 떠나 보냈다. 시도니아 공이 이끄는 스페인 군의 전략은 영불해협을 빠르게 지나 칼레항구에서 네덜란드 반란군을 진압하고 있던 파르마군의 육군을 태워 영국 본토로 바로 진격하는 것이었다.

인물소개

엘리자베스 1세 (Exhibit 1)

엘리자베스 1세는 1558년 11월 17일, 25세의 나이로 잉글랜드의 여왕이자 아일랜드의 여왕으로 즉위하였다. 그녀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신의 어머니 앤 불린과 결혼하기 위해 아버지인 헨리 8세가 만든 영국 성공회 신자였고, 이전 여왕이었던 언니인 메리와는 전혀 다른, 국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목적에서라면 그 어떤 수단이든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능동적인 생각의 소유자였다. 그녀의 이러한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 제일 잘 보여주는 일화는 다음과 같다. 엘리자베스의 즉위 당시 그녀는 25세의 처녀 여왕이었기에 즉위 전부터 그녀의 결혼 문제는 국내외에서 뜨거운 감자였고, 그녀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사람은 언니였던 메리 1세의 남편인 필리페 2세였다. 엘리자베스는 이와 관련해서,

“나는 이미 남편에게 봉사하고 있으니 그분은 잉글랜드 왕국입니다(I am already bound unto a husband, which is the kingdom of England).”

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며 펠리페 2세의 청혼을 단칼에 거절하였다. 엘리자베스가 결혼 의사를 암시했던 경우는 오로지 외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했던 몇 번의 전략적인 선택뿐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자신의 개성에 걸맞게 경력은 기묘하지만 능력은 뛰어났던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했다. 그녀는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통상적인 윤리 기준쯤은 쉽게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었으며, 즉위 초기부터 스페인의 독점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던 사략함대를 지원하며 해적 출신 프랜시스 드레이크 등의 인물들을 기사 작위까지 내리며 아꼈고, 이들은 칼레 해전에서 크게 활약하였다.²

펠리페 2세 (Exhibit 2)

펠리페 2세는 로마 가톨릭의 반종교개혁 운동의 옹호자였으며 그의 통치기에 스페인은 최상의 국력과 영토 확장을 자랑했다. 황제 카를 5세와 포르투갈의 이사벨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1540년 부왕으로부터 밀라노 공작령을, 1554년 잉글랜드의 메리와 결혼해서는 나폴리와 시칠리 왕국을, 1555년엔 네덜란드를, 이어 1556년엔 스페인 왕국과 스페인의 해외 식민지를 차례로 물려받았다. '서류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각료들이 왕에게 제출하는 메모·보고서·제언 등의 문서를 바탕으로 전체업무를 문서화 했으며, 마드리드에서나 시에라 드 구아다라마 언덕에 있는 엘에스코리알 궁의 작은 집무실에서 그는 항상 열심히 일했다.

구체적인 그의 업무 진행방식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의 통치방식이 극장 행정으로 악명이 높고 정부체계를 치명적일 정도로 둔화시켰다고 비판했으며,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결정을 회피하는 성품을 지닌 국왕이라 생각했다.

펠리페 2세는 능력 있고 충실한 신하에 대한 펠리페의 병적인 의심을 가졌었는데, 파르마 공작부인인 오스트리아의 마르가레테, 알바 공작, 알레산드로 파르네세 등과 같은 유명한 인사들도 곤욕을 치렀다. 당시 궁정사관인 카브레라 데 코르도바는 이와 관련해서 "그가 웃을 때와 노려볼 때를 분간하기 힘들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수많은 인사들이 펠리페의 동의하에 살해되었다. 결국 왕궁은 치열한 당파싸움 속에 빠져 스페인 왕정의 전반적인 행정체제는 마비되기까지 했다.

펠리페 2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도 유명했는데, 그가 1566년 로마에 있는 특사에게 보낸 편지에

*"이단의 통치자가 되어 신의 가호와 신앙에 손상을 입히느니 차라리 나는 국가와 목숨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교황에게 확실히 밝히라"*³

² 김후, 『불멸의 여인들』, 서울: 청아출판사, 2009

³ 다음 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23p2522b>

고 쓴 것은 이를 잘 드러내준다. 그는 국민들을 가톨릭 신앙 안에 살게 하는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교황조차도 신의 사역과 스페인 왕정의 사명에 대한 펠리페 2세의 신념을 구별하는 데 종종 어려움을 겪었다. 그의 이런 독실한 신앙은 1580년대에 그가 서유럽의 가톨릭 신앙과 네덜란드에서의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잉글랜드와 프랑스에 대한 전면적인 개입에 들어가야 한다고 확신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를 위해서 네덜란드 주둔 스페인 군대의 협조를 얻어 무적함대를 구축해 영국 침공에 나서게 하였다.

프랜시스 드레이크 (Exhibit 3)

드레이크의 아버지는 열렬한 프로테스탄트 평신도 설교사였으며 이는 드레이크의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가톨릭에 대한 드레이크의 혐오감은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연유했을 뿐만 아니라 1549년 발생한 가톨릭교도의 반란 중에 그의 가족이 잉글랜드의 서부지방을 떠나야 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에도 뿌리를 두고 있다. 궁핍한 가정형편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일찍 바다생활을 시작하여 23세쯤 되었을 때 당시 신대륙과의 무역을 시작하고 있었던 호킨스 가문의 선단에 참가했다.

제 2차 서인도제도 항해 때, 그는 멕시코 연안 산후 안데올루아에서 스페인 측의 맹렬한 공격을 받아 많은 선원들이 사망하는 사건을 겪었다. 이때 영국으로 귀환하면서 드레이크는 스페인과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에게 복수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다졌으며, 1577년 마젤란 해협을 통해 남아메리카 대륙을 돌아 그 너머의 해안을 탐사하기 위한 원정을 떠날 때는 심지어 엘리자베스 1세로부터 스페인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손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여왕의 이권과 함께 드레이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도 좋다는 공식 허가까지 얻었다.

그는 이 항해에서 스페인 상선을 공격해 상당한 재물을 얻었으며, 세계일주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금·은괴와 스페인 주화, 진주 및 값비싼 보석들을 가득 싣고 영국으로 돌아왔다. 이와 같은 활약을 통해 엘리자베스 1세의 신임을 얻은 그는 이후에 펠리페 2세의 침공 소식을 들은 여왕에게서 '영국에 대한 공격을 준비 중인 스페인을 응징'하는 전권을 위임받았으며, 칼레해전에서 크게 활약하였다⁴.

⁴ 권홍후, 『99%의 몰모텔』, 서울: 인물과사상사, 2010

대포의 역사

초창기의 대포

14세기 초반부터 유럽은 전장에서 대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362년 피렌체의 공문서의 내용으로 볼 때 그 무렵 이미 금속제 포탄을 사용하는 청동 대포가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세기 초 대포는 전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측면을 보였다. 초창기의 대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크기가 급격히 커졌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사석포(射石砲 : 커다란 돌덩어리를 날려 보내는 전장식포) 유형의 거대한 대포가 개발되어 큰 인기를 누렸다. 영국에서는 15세기 무렵 '몽 메그(Mons Meg)' (Exhibit 4)라고 불리는 무게가 6톤 이상 나가고 구경이 20인치 이상인 거대한 대포가 등장하기도 했다.

대포는 일반적으로 철이나 청동으로 만들었으나 철은 효과적으로 주조하기 어려웠고 주철은 갈라질 위험도 상당히 컸다. 이 반면 청동은 기술적으로 주조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으며, 예부터 교회의 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청동 주조 공정에 익숙한 숙련공들이 유럽 전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원자재만 본다면 청동보다 철이 훨씬 저렴했다. 하지만, 효율적인 주철 공정이 발전되기 전까지 대안은 청동 대포와 연철 대포뿐이었으며 연철 대포를 제조하는 공정은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비용이 증가했기에 청동 대포와 연철 대포의 최종적인 가격 차이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게다가 연철 대포는 청동 대포에 비해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5세기 중반부터 유럽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하는 근대 국민 국가의 확립, 지리상 발견, 해외 팽창 등의 원인 등으로 대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포르투갈의 주앙 2세, 합스부르크가의 막시밀리안 황제와 같은 각국 군주들은 포술(art of gunnery)에 대해 열광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추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포병과 대포 제작자를 후원하는 한편 여러 가지 대포와 관련된 장비들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6세기를 거치며 제기된 문제점은 기술적인 것에 더불어 경제적인 면이었다. 주로 생산된 청동 대포는 제조 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고 수요가 커질수록 이 비용을 감당하기는 점차 부담스러워졌다. 또한 기술이 현대에 비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포의 기대 수명도 매우 짧았다.

에스파냐의 대포 부족

에스파냐가 해외 팽창과 유럽의 패권 다툼에 뛰어들었을 때 국가의 대포 생산력은 수요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숙련공의 부족이었는데, 1557년 에스파냐 주재 베네치아 대사 바도에르Badoer는 “에스파냐보다 숙련공이 부족한 나라도 없을 것”이라는 말을 언급했다.⁵ 대포 생산과 관련된 국가의 조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내놓는 단기적인 처방 수준이었다. 에스파냐는 당시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대포 생산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을 대부분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장기적으로 기술에 투자하고 장인들을 우대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금전적인 비용을 분석해 위급 상황이 해소 된 후에는 소집을 해제하고 그들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았다. 나름의 비용을 분석한 합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선택이 되고 말았다. 16세기 후반, 전쟁과 종교적 대립 등의 요인으로 에스파냐가 통치하던 지역의 경제가 붕괴되고 이에 따라 숙련공이 대량으로 국외로 이주하자 에스파냐의 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심지어 적국의 대포 생산에 의존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영국, 주철 대포의 등장.

영국은 16세기 초까지만 해도 보잘 것 없는 국가에 불과했으며, 잉글랜드 웨일스의 인구는 4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영국의 대포 산업과 군비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14세기와 15세기까지 영국의 군수 산업은 대륙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 한 가지 원인은 철광석 공급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영국인들은 쉽게 발견되는 철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고 철 제련 공정이 구리 등의 제련 공정보다 당시 기술적으로 더 발전하지 못했기에 기술적으로 계속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15세기 후반, 헨리 7세의 강력한 의지 하에 제련 기술의 개선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고 대포 생산이 크게 확대되었다. 1510년경 주철 대포가 제작되었으나 품질이 그다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다. 헨리 7세의 뒤를 이은 헨리 8세는 대포 분야에서 영국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다. 초기에는 대륙에서 청동 대포를 대량 수입하기도 했으나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후에는 자국의 철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1541년 헨리 8세는 윌리엄 레빗이라는, 교구의 사제이며 당시 세금 징수 대리인의 역할을 맡았던 인물을 왕립 제철소의 전차인(轉借人)으로 임명했다. 국왕의 선택은 다소 의아해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그의 선택은 옳은 것으로 밝혀졌다. 1543년 프랑스와의 전쟁이 임박해져 대포의 수요가 증대되자, 윌리엄 레빗은 근처의 여러 프랑스 대포 제작자들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뛰어난 기술자를 데려와 최고의 작업 집단을 조직했고 결국

⁵카를로 M. 치폴라, 『대포 범선 제국 : 1400~1700년, 유럽은 어떻게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최파일 역, 서울 : 미지북스, 2010, p.35

뛰어난 품질의 주철 대포 여러 문이 성공적으로 제작되었다. 주철 대포의 생산은 빠르게 증가되었고 영국 제품과 기술력의 명성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무엇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주철 대포는 청동 대포를 압도했으며 그렇기에 여러 국가들은 영국산 대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영국산 대포의 수출이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지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대포의 수출을 제한하는 칙령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국은 밀수와 같은 은밀한 방법을 통하여 영국산 대포를 수입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성공에의 집착

역사는 자신이 지금까지 잘해오던 것에 집착해 새로운 기술을 거부한 무수한 사례들로 가득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육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함포란 혁신을 거부한 펠리페 2세의 선택은 사실 예외적인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대포

1453년 5월 29일 오스만투르크의 메메드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마침내 함락시켰는데, 천년이상 난공불락의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거대한 대포였다. 불 뿜는 도마뱀이라고 불린 이 대포는 포신의 길이만 8.2m 무게는 19톤이 넘었고, 500kg이상의 돌덩어리를 깎아 만든 포탄을 최소 1.6km이상 발사하는 괴물이었다. 불 뿜는 도마뱀은 난공불락이라던 콘스탄티노플 함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오스만 제국은 이때부터 대포 크기에 매달렸다.

하지만 18세기 오스만 제국이 쇠퇴기에 접어들었을 무렵, 투르크에 파견된 한 프랑스인 함장의 대포에 대한 의견은 이와 같았다.

'넓은 구경 때문에 겉보기에는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한번 발사되면 준비시간이 길기 때문에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그 당시 유럽인들은 거대한 대포의 단점을 인지하고 이동성이 높고 발사속도가 빠른 즉, 작고 다루기 쉬운 야포를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콘스탄티노플의 성공만 기억하는 투르크인들은 거대한 공룡처럼 계속 대포의 무게와 크기만 키워나갔다.

야포의 우위가 이미 확실해진 18세기에, 거대한 대포에 대한 투르크인들의 집착은 계속되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이었던 투르크인들은 해협이 내려다보이는 성곽 위에 500kg 상당의 바윗덩어리를 발사할 수 있는 거대한 대포를 올렸는데 이 대포를 이동시키는데 사흘, 도착하는데 한나절이

걸렸다.

영국군 포병 장교 : *이 포가 나가긴 나갑니까?*

투르크인 : *예! 이게 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발 나가기만 하면 적들은 다 끝장입니다.*

영국군 포병 장교 : *쏘는 것을 본적은 있습니까?*

투르크인 : *.....아니오. 아직 아무도 본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쏘기만 하면...*

발사 직전 주위사람들은 모두 도망갔다. 단 한발을 장전하기 위해 화약이 150kg이나 사용됐고 마침내 엄청난 굉음을 울리며 대포가 발사되었다. 하지만 단 한발을 발사하고 대포는 부서져 버렸으며 발사된 500kg의 돌덩이는 500m 떨어진 곳에서 세 조각으로 갈라져 저 바다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범선의 역사⁶

갤리선

갤리선은 선체가 길고 가늘며 삼각돛과 여러 층으로 된 노가 있는 배의 일종으로, 주로 전투선으로 쓰였다. 갤리선은 추진력을 노에 의존하고 돛은 보조 장치로 이용했다. 갤리선은 가볍고 길고 납렵하여 움직임이 민첩했으며, 항해하기에 비교적 짧은 거리인 지중해를 누비기에 적절한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이러한 갤리선의 돛과 돛대를 개량해 포를 장착하고 완벽한 군사적 목적으로 만든 배가 '갈레아차' 혹은 '갈레아스' 선이다. 갈레아선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16c 유럽 기독교 진영과 오스만 투르크 간에 일어났던 레판토 해전이다. 이 해전에서 갈레아선은 개량되지 않은 오스만 투르크의 갤리선을 처참히 무너뜨렸다. 하지만 신대륙이 발견되고 장거리의 항해가 일상화되자 노를 추진력으로 삼던 갤리선은 범선으로서의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캐력과 캐러벨이 그 역할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캐력

'측면이 높고 적재량이 큰 배'로 갑판이 4~5개 있고 선루 2개가 앞뒤로 있으며 돛을 3개를 펼칠 수 있다. 적재량은 2000톤 이상이며 주로 교역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전쟁시 전투선으로 쓰이기도 했다. 특히 15c에 들어와 추진력의 수단으로 돛이 노보다 우월하다는 점과 화포를 적재할 수 있는 넓은 갑판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자 캐력은 상선 못지 않게 전투선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졌고, 신대륙의 발견과 대서양으로의 진출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전투형 범선으로써의 가치

⁶ 프랑코 지오게티, 에릭 아브란슨, 『범선의 역사』, 서울: 예담 2007, p38~p49

가 더욱 커졌다.

캐러벨

캐러벨은 돛대가 2개 가지고 있고 약 100~300 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소규모 상선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배의 대부분의 특성은 캐릭과 비슷했지만 규모는 더 작았다. 하지만 캐릭과 마찬가지로 신대륙의 발견과 대서양으로의 항해와 맞물려 전투선으로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고 여러 차례의 개량을 거쳐 갈레온선 등의 군함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지중해 해전 전역은 갤리선의 전쟁이었다. 에스파냐는 대서양으로 관심을 전환하면서 새로운 타입의 함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지중해의 갤리선은 연안전투와 상륙전에서는 대단히 효율적인 공격수단이었고 레판토 해전에서 그 존재가치를 입증했다.

하지만 대서양으로 관심을 돌린 이후 수면 위의 낮고 좁은 선체로 인해 갤리선은 대서양의 강풍과 큰 파도를 견뎌낼 수 없었고 수면 위로 높게 갑판을 가진 둥근 형태의 대형함선만이 대서양을 항해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1580년, 스페인은 북쪽 해안 및 북서쪽 끝에 있는 라코루냐라는 곳에서 선박을 대량으로 건조했으며 해군의 새로운 전략 기지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대형함선 해전을 위해 유례없는 대포, 포수, 병력의 수요가 생겨났다.

이러한 대서양 함선으로의 전환은 스페인의 대서양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특히 아메리카 및 서인도제도에 있는 스페인 제국의 독점무역은 계속되어야 했고 이러한 독점무역이 대서양에서 북유럽의 함선들에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스페인이 포르투갈의 합병한 이후 형성된 스페인의 광범위한 해안 영토들은 대서양에서 활동 가능한 대형 함선들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켰다.

영국은 새로운 설계방식을 적용하였다. 갈레온선의 높은 갑판을 내리고 선체를 유선형으로 제작해 갤리선 같은 낮은 뱃머리의 모양을 갖추었으나 상대적으로 배의 후미는 높았다. 개량된 배는 먼 거리를 이동하고 빠른 조작이 가능했으며 아주 강력한 대포로 무장할 수 있었다. 영국은 이를 레이스 빌트 갈레온선이라고 불렀고 이 레이스 빌트 갈레온선은 유선형 선체, 낮은 상부 구조 덕에 바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로 인해 속도조절과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하였고 갈레온선을 개량했기 때문에 무거운 무기 또한 적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다. 전적으로 해전을 위한 범선이었다.

해전양상⁷

15C 전까지의 유럽 내 해전은 육군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무방할 정도의 육탄전이었다. 대부분의 전투는 영불해협, 지중해 등에서 일어났으며 이 장소들은 대서양과는 달리 바다의 크기가 가까웠다. 또한 갤리선의 기동성은 범선들과의 거리를 더욱 단축시켰고 이는 자연스레 배들이 부딪히게 만들었다. 그 이후는 육지에서의 전투와 별 다를 바 없이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해군력은 그 나라의 육군력의 차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해전양상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전투가 레판토 해전이었다.

레판토 해전은 오스만 투르크와 유럽의 기독교 연합인 신성 동맹 연합과의 전투였다. 신성 동맹은 206척의 갤리선과 6척의 갤리아스선, 12,920 여 명의 선원, 그리고 28,000 여명의 육군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에 맞서는 오스만 투르크는 222척의 갤리선, 56척의 소형 갤리선, 13,000 여명의 선원, 34,000여 명의 육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규모에선 오스만 투르크가 조금 우세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갤리선이 부딪히고 갑판에서의 전투가 시작되자 당시 최고라고 평가받던 15,000여명의 에스파냐 육군들의 화력에 오스만 투르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15,000여명의 사상자 및 포로, 200여 척의 침몰 및 나포 등의 피해를 입고 퇴각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레판토 해전으로 인해 동양이 가지고 있던 패권이 서양으로 넘겨져 왔으며 에스파냐의 국력과 자신감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Exhibit 6)

하지만 15C부터 신대륙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대서양을 건너야 하는 항해가 빈번해지자 노를 주로 이용해 항해를 지속하는 갤리선은 항해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범선 또한 갤리선보다는 캐릭과 캐러벨을 개량한 대형 범선이 활용되었다. 또한 포가 발전됨에 따라 범선에 군사가 아닌 포를 적재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는 범선이 대형화되면서 더욱 빠르게 변하였다. 16C로 넘어가면서 해군력은 더 이상 육군의 화력이 아닌 포의 화력에 의해 해군력이 결정되기 시작하였다.

영불해협에서의 해전

시도니아 공작은 해상 경험은 별로 없었지만 조직력이 뛰어났다. 때문에 경험 많은 함장들의 협조를 받아 대규모의 군대를 양성하고 거대한 함대의 물자를 보급할 수 있었다. 이들은 출발 전 함대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기 위한 신호 체계와 항해 명령, 진법 등을 세심하게 정비했다. 마침내 1588년 5월 29일, 거의 2만 명에 달하는 병사들과 8000명의 선원들로 이루어진 무적함대가 리스본 항을 출발했다. 항해 도중 스페인군은 역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 닥치는 바람에 잠시 항해

⁷신항섭, 『스페인 제국과 무적함대의 흥망』, 서울: 랜드앤마린, 2011, p137~p140

가 중지되기도 했지만, 다시 항해를 계속하여 마침내 리스본을 떠난 지 두 달 만에 영국 해협에 도착하였다. (Exhibit7)

1588년 8월 8일 영국 해협에 다다른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플리머스 연안에서 영국의 주력함대와 처음으로 전투를 시작했다. 시도니아 공이 전군에 명령했다.

“적들이 전면전을 펼치면 바로 응수하라. 우리는 함대를 최대한 적군의 배에 밀착시켜 우리가 이 전에 승리했던 방식 그대로(Exhibit8) 우리 병사들을 승선시킨다.”

하지만 영국 함대는 결코 스페인의 무적함대에 접근하지 않았다. 선박의 크기나 규모 면에서 스페인의 함대와 비교해 너무 차이하기도 했지만 전투방식이 첨예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영국 전함의 경우 높이가 낮고 속도가 빨랐으며, 스페인 전함보다 화포 사거리가 좀 더 길었기 때문에, 적군과 거리를 두고 포격을 하는 전투방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드레이크는 스페인 무적함대와의 접근전을 피하면서 원거리에서 스페인 전함을 파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 함대가 좀처럼 거리를 내주지 않자, 시도니아공은 자신의 함대에게 초승달 대형(Exhibit7)을 펼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영국 함대의 뛰어난 기동성과 화력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해낸 방어형 진법이었다.

“훈련한 대로 초승달 대형을 펼쳐라. 대형의 외곽에는 대포 사정거리가 가장 길고 가장 튼튼한 갈레온 포격선을 배치하여 양쪽 끝을 엄호하라. 그리고 대형의 안쪽에는 인력 운송선과 물자 보급선을 배치하라”

시도니아 공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빠르게 대형을 정비했다. 이 대형은 적이 어느 쪽에서 접근해 와도 방향을 바꿔 적과 맞설 수 있었다. 마치 사자가 어느 쪽에서 다가와도 물소가 그쪽으로 뿔을 들이댈 수 있는 것과도 같았다. 그래서 영국의 함대가 바깥쪽에서 공격할 시 강력한 갈레온선의 포격을 받게 되었고,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대형의 뒤로 돌아 안쪽을 공격할 시 십자포화 공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영국함대는 쉽사리 초승달 대형에 접근할 수 없었다.

“거리를 주지 말고 적의 후미로 진입하라. 우리는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서 게릴라 전술을 펼친다. 쉬지 않고 포격하라.”

드레이크의 명령에 따라 영국함대는 스페인 함대의 사정거리가 닿지 않는 거리에서 쉬지 않고 포격을 가했다. 하지만 격렬한 함포전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주력함대는 서로 피해를 주는 데는 실패하였다. 스페인의 무적함대는 화포의 사거리가 짧아 닿지 않았기 때문이고, 영국의 화포는 사거리는 닿았지만, 그 명중률이나 파괴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초승달 대형의 후미

에 가까이 접근하기에는 포위공격으로 인해 집중포화를 맞아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이 뻔했다.

“포로 인해 뚫린 곳이 있으면 즉시 수리하라. 우리는 이 대형을 유지한 채 그대로 영불해협을 돌파한다. 이 전투는 칼레 항구에 도달해 파르마공과 조우하면 사실상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

시도니아 공의 명령대로 스페인 무적함대는 순조롭게 영불해협을 지나갔다. 영국군은 4일 밤낮을 계속 장거리포를 쏘았지만 효과적인 방어 진형 덕분에 스페인의 배는 지속적으로 피해가 누적되긴 했지만 충분히 감수할 만한 정도였다. 결국 4일간 4차례에 소규모 전투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무적함대는 규모에 비해서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은 채 칼레 항구로의 항해를 지속할 수 있었다.

시도니아공이 영불 해협을 뚫고 칼레항구로 진격한 것은 파르마공과의 합동 작전을 실행하기 위함이었다. 아르마다의 총 사령관이었던 시도니아는 파르마 공과의 작전을 통해 칼레 항구에서 파르마 공의 병력을 추가로 아르마다에 탑승시켜 곧바로 영국 해협을 통해 영국 섬 전체를 점령하고자 한 것이다. 이미 칼레항구 도착 8일전 연락병을 파견하여 작전을 지시한 상태였다. 따라서 시도니아공은 영불 해협을 뚫고 칼레 항구에서 파르마 공의 병력을 태우기 위해 계속 복상하였다. 영불해협을 지나 칼레항구에 다다른 시도니아 공은 파르마공의 3만 군사가 집결하여 있는 항구의 모습을 예상하며 물살을 가르고 나아갔다. 하지만 항구에 점차 다다르면서 아르마다에는 오묘한 기운이 감돌았고 시도니아공은 잠시 후 그 이상한 기운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8만 대군의 발소리와 열기가 느껴져야 할 칼레 항구에는 대군이 아닌 갈매기만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시도니아공이 파르마공의 3만대군이 칼레 항구에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도착할 당시, 파르마공은 어영부영 짐을 꾸리고 있었다. 파르마공의 입장에서는 다른 스페인 장군들과 마찬가지로 중무장한 영국 전함이 가득한 바다를 자신의 병력들과 건너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소통수단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시도니아 공은 칼레 항구에 도착하고 나서야 파르마 공의 3만 병력과 합류하기 위해서 1주일이라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르마다에서는 이러한 작전의 불협화음으로 출격준비가 지체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스페인 함대는 방어가 취약한 칼레 해안에 집단으로 정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외부에서 정확한 사정을 알 길이 없는 영국군은 칼레 항구에 집단 정박해 있는 아르마다를 보며 공포에 사로잡혔다. 영국군의 입장에서는 아르마다와 파르마공의 육군이 접선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인식했고, 그에 따라 곧 이어 영국 본토로 진격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다.

드레이크는 칼레 항구로 들어가는 아르마다 무적함대를 바라보며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참모진들과 같이 작전 회의를 열었고 무적 함대가 에스파냐 육군을 태우고 영국 본토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드레이크와 참모진은 아르마다 함대를 격

파할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아르마다의 견고한 초승달 대형을 흐트러뜨리고 효과적으로 공략할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았다. 자신들의 함대와 포로는 무적함대의 진형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영불해협에서의 해전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드레이크는 획기적인 작전을 제안한다. 화공선 작전이었다. 당시의 배들은 가연성이 높은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은 화공선 작전의 유효성을 높이는 요소로 생각되었다. 드레이크는 8척의 화공선 함대를 준비하였다. 모든 배에 화약과 포탄을 2배로 장착하고 불길이 도화선에 닿자마자 폭발하도록 해서 공포감을 극대화시켜 스페인의 강력한 초승달 대형에 혼란을 주고 그 틈을 이용해 아르마다를 공격하고자 하는 작전을 구상하였다. 특히, 그는 화공선 공격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날씨와 해류를 일으키는 바람이 마침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날, 드레이크는 자신에게 기사 작위를 내려준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여왕 폐하. 하늘이 도와 역풍이 불었습니다. 가히 프로테스탄트 바람이라 부를 만했습니다. 스페인군은 저희가 바람의 방향을 타고 보낸 화공선을 보자 놀라서 진영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그동안 공격하기 까다로웠던 초승달 대형이 흐트러진 덕에 마음껏 저희의 함선 분쇄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린 전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접 포격을 통해 거대한 갤리선 몇 척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발한 산탄포를 통해 적군 다수를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보급선을 탈취하여, 적들의 식량 보급을 차단하였고 그 중 일부에서는 대량의 황금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스페인군은 패퇴하여 영불해협이 아닌 스코틀랜드로 우회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Case Questions

질문 1. 스페인의 패배의 원인은 무엇인가?

질문 2. 영국이 혁신을 거듭하고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3. 스페인의 육탄전 집중 전략은 과연 잘못된 선택이었나?

Exhibit 1. 엘리자베스 1세



Exhibit 2. 펠리페 2세



Exhibit 3. 프랜시스 드레이크



Exhibit 4. 몽 메그(Mons M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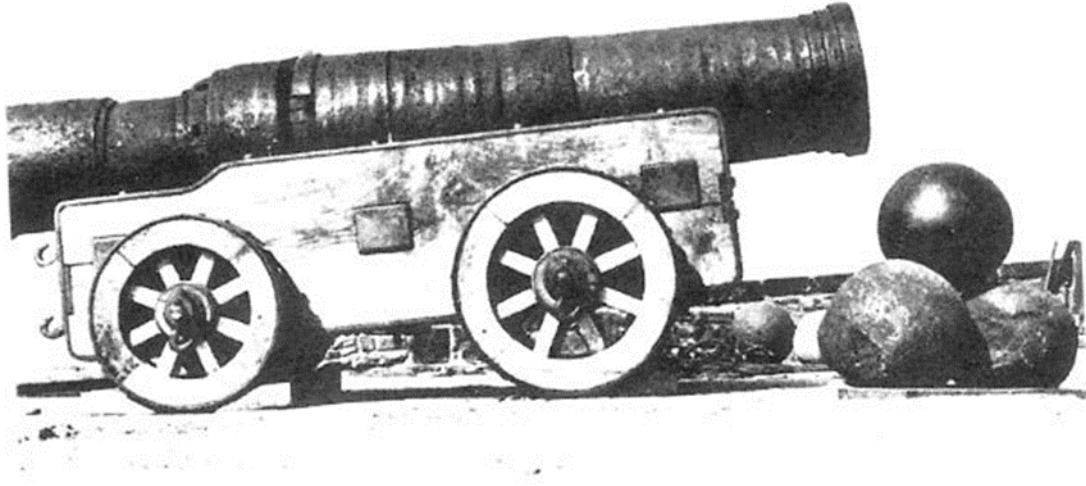


Exhibit 5. 투르크 기술의 영향을 받은 대포



Exhibit 6. 레판토 해전 당시의 전투 양상 - 백병전



Exhibit 7. 스페인군의 진군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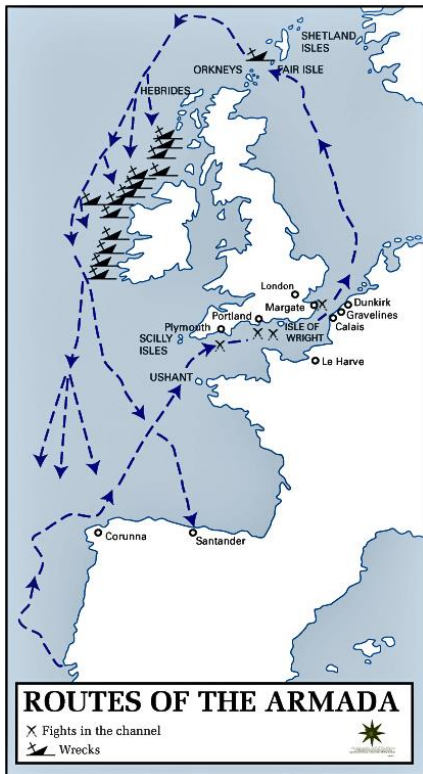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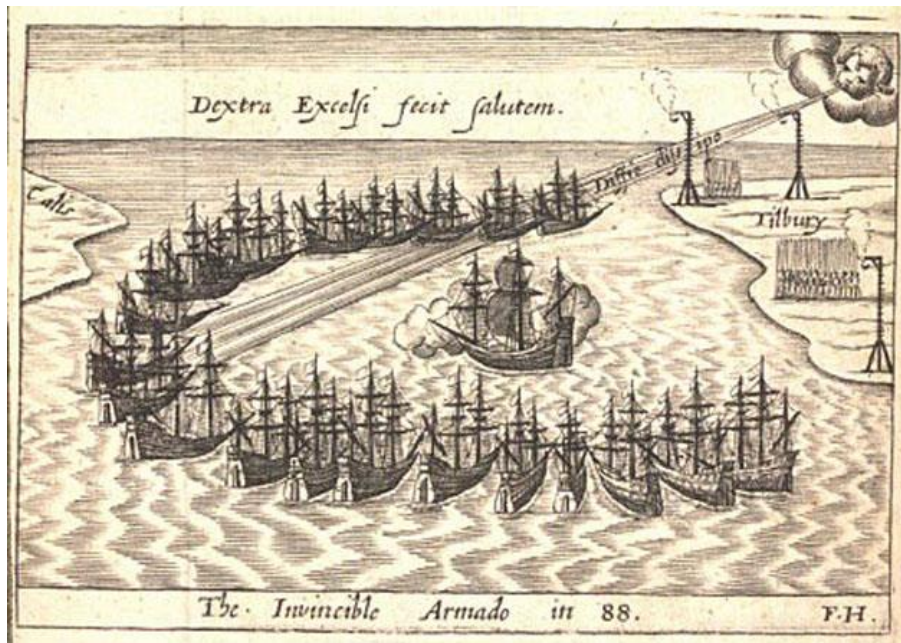


Exhibit 8. 당시 스페인 무적함대의 방어형 초승달 대형



참고 문헌

이에인 디키, 마틴 J. 도헤티, 필리스 J. 제스티스, 크리스터 외르겐센, 롭 S. 라이스 , 『해전의 모든 것 : 전략, 전술, 무기, 지휘관 그리고 전함』, 한창호 역, 서울 : Human & Books, 2010, p.121

김후, 『불멸의 여인들』, 서울: 청아출판사, 2009

권흥후, 『99%의 롤모델』, 서울: 인물과사상사, 2010

영화 『엘리자베스 골든 에이지』, Elizabeth: The Golden Age(2007)

다음 백과사전, "펠리페2세",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23p2522b>.

카를로 M. 치폴라 , 『대포 범선 제국 : 1400~1700년, 유럽은 어떻게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최파일 역, 서울 : 미지북스 , 2010 , p.35

한스 크리스티안 후프 , 『쿠오 바디스,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1』, 정초일 역, 서울 : 푸른숲, 2002

프랑코 지오게티, 에릭 아브란슨, 『범선의 역사』, 서울 : 예담, 2007

신항섭, 『스페인 제국과 무적함대의 흥망』, 서울: 랜드앤마린, 2011